

『엑시빔 Xhibits』 제2호 서면 인터뷰

인터뷰어: 엑시빔

인터뷰이: 이유민

이유민은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 파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소를 매개로 교차하는 인적·물적·제도적 관계망과 그 경계의 작동 방식에 관심을 두며, 그것이 미술의 언어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찾고 있다. 특히 도시 안에서 생성되고 전환되는 예술 실천의 위치에 질문을 던지고, 이를 전시·리서치·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최근 기획한 전시로는 《(non) Blind-Spot》(PS CENTER, 2025, 공동기획), 《유리그릇》(노들갤러리, 2025, 공동기획), 《여분의 시 The Extra ()》(2025, 공간 파도)가 있다.

1. 『엑시빔 Xhibits』 제2호의 표제어는 “독립 Independent”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상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독립이라는 단어는 홀로 서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도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같은 뜻을 가진 in-dependence 역시 의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파도 같은 소규모 전시 공간은 독립공간으로 분류되지만,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의 ‘홀로-서기’라는 의미로 독립을 이해하면,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전시를 포함한 모든 창작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율과 협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의존’으로서의 독립은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외딴 섬이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바다가 다시 다른 섬들과 이어져 있듯이, 독립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또 다른 형태나 확장의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파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보다 어떻게 서로에게 닿을 것인가를 질문하는 공간이고자 합니다.

2. 공간 파도의 운영 방침에 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간 오픈의 계기를 한 인터뷰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4>)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덧붙여, 전시 공간을 열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게 된 전시 공간이 현재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초기 비전과 현재) 등에 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파도는 2021년 1월 마포구 연남동 동진시장에 자리를 잡으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오픈했던 2021년 겨울은 한국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고, 팬데믹과 비대면 일상화 속에서 위축된 분위기가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당시 운영자는 4명이었는데, 공간을 열게 된 계기와 동기는 각자 달랐지만,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실험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파도는 외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역할을 전환하며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의 성격을 지향했습니다.

파도가 자리한 홍대권역은 독립·대안·소수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고, 특히 연남동은 상업 공간이 밀집한 동네이지만 동진시장은 독립 책방, 레코드 숍, 작업실 등이 모여 플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소였습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으며 텅 비어 있던 공간에 예술인들의 실험과 새로운 시도가 놓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운영 인원 변동과 장소 이전 등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시 및 프로젝트 공모, 기획전, 대관을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고, 실험적 기획이나 신진 창작자의 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무렵부터 서울 곳곳에서 열린 전시들을 보며 전시 공간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외진 곳에 자리한 공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에게 전시 공간이 미술계 안에서 자생과 독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하나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3. 홈페이지(<https://www.spacepado.kr/>)를 보면, 대관 운영비를 공지사항에 투명하게 밝히고 있으신 점이 눈에 들었습니다. 대관비를 완전히 오픈한 경우를 썬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듯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대관 운영의 기초에 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작가·큐레이터 DB, 전시공간 정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전시 일정까지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수집되고 빠르게 유통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간의 대관비를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도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나 큐레이터인데, 이들에게는 전시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개인 창작자의 실험과 연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 공간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폐쇄적일수

록 시도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조건과 구조를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정보가 누군가에게 시도를 시작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관 정보를 얻기 위해 일일이 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를 보내야 하는 관행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 여부가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대관비와 신청 방식 등 접근 가능한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도는 상업적 목적이 강한 프로젝트이거나, 공간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경우에 대관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관비와 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시된 정보가 파도의 성격에 맞는 창작 활동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4. 공간 파도의 ‘실험전’을 거쳐 간 작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전이 공간 파도의 주요 기획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의 의도와 앞으로의 기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 파도의 ‘실험전’은 매년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정기 공모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하기보다 새로운 접근과 전시 과정 자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가 하나의 결과로만 남기보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질문과 방향 전환, 확장으로 이어지는 가능성까지 함께 드러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험전은 파도의 운영 기조와도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프로젝트이며, 공간이 독립 창작자의 새로운 시도를 안전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실험전을 돌아보면, 평면·조각·설치와 같은 단일 매체를 기반으로 한 작업부터 여러 매체가 결합된 전시까지 다양한 형식의 시도가 고르게 등장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장르나 표현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가가 스스로 정의하는 ‘실험’의 범위 안에서 매체적·담론적 확장을 추구하고자 한 기획 취지와도 연결됩니다. 실험전이 새로운 매체를 모색해 보거나 자신의 작업을 다른 각도에서 사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와 작가노트와 함께 제출되는 ‘실험계획서’를 중심으로, 실험이 지니는 내용성과 시의성, 그리고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정 이후에는 전시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작가와 실험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전시가 단발적인 발표로 그치기보다, 이후 작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지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가능한 한 이후 활동까지 계속 지켜보며 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험전은 앞으로의 작업을 가늠해 볼 수 있

는 과정을 함께 모색하는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도에서는 64개의 실험전이 진행되었고, 종종 다른 자리에서 실험전을 함께 했던 작가들을 다시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함께 만들어 온 시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실험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